

요 약

- ▶ 세계 건설시장의 성장과 함께 국내 건설기업들의 대규모 해외사업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2013년 해외건설에서 경험한 손실을 교훈으로 삼아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조기 경보(Early Warning) 기능이 가능한 체계로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
 - 국내 건설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의 수준과 운영 범위는 다양하지만 글로벌 건설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리스크관리 체계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음.
 - 본고에서는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체계의 글로벌 표준화를 재고찰하고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역량을 조사함으로써 기업들의 현황 및 시사점을 제시함. 이는 향후 국내 건설기업들의 리스크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건설기업들의 해외사업 리스크관리 역량을 조직/절차/시스템, 수주 단계, 수행 단계 영역에서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 건설기업들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성을 제안함.
 - 국내 건설기업들의 리스크관리 조직/절차/시스템은 실제 사업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수주 단계의 리스크 식별 및 평가에 집중되어 평가 후 분석, 대응 후 평가 등 사후 관리를 위한 리스크 추적과 변화 관리를 위한 기능이 절실히 필요함.
 - 특히, 실무자의 경험적·주관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정량적 리스크 평가가 어려움. 이는 최근 정량적 리스크 평가에 대한 발주 요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속히 보완해야 할 기업들의 선결 과제임.
- ▶ 가격 경쟁과 함께 기술 경쟁이 가능한 수행 단계의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함. 수주 단계 중심의 리스크관리 체계로 손실의 최소화과 목표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수행 단계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수주 단계와 통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및 경영 전략 수립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리스크관리에 대한 문화 확산이 시급함. 리스크관리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기업 자체적인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함. 효율적인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과 운영은 통합 프로젝트관리 체계와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켜 사업과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음.
 - 리스크관리의 문화 확산은 중·장기 계획과 함께 경영진과 실무진의 소통을 위한 환경 조성, 책임과 역할이 분리될 수 있는 사업 수행 환경 등이 중요함. 이러한 환경은 사업에 대한 리스크 정보의 신뢰도를 높여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리스크관리에 대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기술적(technical)이 아닌 관리적(managerial) 측면에서의 전문성이 현장의 실무 경험과 융합될 경우 사전 조기 경보 기능과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리스크관리 체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음.